

# “철도 문제, 화쟁 통한 대화로 풀어냅시다”

## 노·사·정 극한 대립... 불교계 중재 역할 나서

“노사 양측 모두 기존의 입장을 고집하는 대신 국가 기간 산업인 철도의 안정과 발전, 나아가 국민의 보편적 행복의 관점에서 문제가 다뤄질 수 있도록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

불교계가 정부와 노동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철도 문제에 대해 중재자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구랍 26일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며 노사정이 대립을 멈추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정부 압박에 철도노조 조계사로 '피신'

조계종 화쟁위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은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원 4명이 구랍 24일 조계사 극락전에 피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철도노조는 박 수석부위원장의 피신 직후 25일 용산 철도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민주노총까지 침탈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양심을 지켜줄 종교계에 기릴 수 밖에 없었다”며 “조계종에서 대화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 탄압에서 비롯된 사회적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은 이에 대해 26일 조계종 화쟁위를 중재자로서의 창구역할을 하기로 결정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 것에 대

### “절박한 마음에 불교계로 왔다”

구랍 24일 철도노조 조계사 피신

### “국민 행복위해 대화 해달라”

불교계 호소 진정성 전해지자

코레일 노사도 실무 접촉 '시작'

26일 코레일 사장, 조계사 찾아

화쟁위, 노사정에 제3대안 제시

KTX면허 발급·파업 중단 요청

해 외면할 수는 없다”며 “자비문종으로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은 당연지사”라고 중재역할을 천명했다.

불교NGO활동가들이 철도파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촉구하는 건기 명상을 진행하는 동안 화쟁위에서는 “국민 행복 관점에서 대화의 장에 나서달라”는 성명을 내놓았다.

이 같은 불교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난 직후 노사 양측은 조계사에서 첫 대화를 시작했다. 25일 철도회관에서 노조와의 대화에 실패한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화쟁위원장 집무실에서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사진 가운데)이 구랍 26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사진 왼쪽), 최연혜 코레일 사장(사진 오른쪽)과 함께 손잡고 있다. 화쟁위원장 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첫 대화에서 이들은 실무교섭을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 코레일 서울 사옥서 노사 실무 교섭을 시작할 것”고 말했다.

### 철도노사 실무교섭 결렬에 화쟁위 '중재인'

하지만 재개된 철도 노사 실무 교섭은 26일과 27일 마라톤 회의 끝에 결국 중단됐다.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철도운송사업 면허발급’을 중단하면 파업을 풀겠다고 밝혔지만 코레일은 ‘면허발급 지체시 개통일정에 문제가 생긴다’며 27일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할 것을 최후 통첩했다. 교섭 결렬 소식에 민주노총은 28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화쟁위원회는 긴급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발표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가 “입법의 효력을 지니는 사회적 협약이 마련될때까지 정부는 수서발 KTX 면허 발급 유보하고 노조는 파업을 잠정 중단해달라”며 “철도노조, 코레일, 국토교통부, 여야, 종교인, 시민사회 등이 나서 철도문제의 국민통합적 해결을 위한 대화기구를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은 국민들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며 “민영화 관련 입법을 두고 여야에서도 갈등이 있는 만큼 범국민적 대화창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종일 · 노덕현 기자

## 조계종 신년하례법회, 1월 7일 동화사서

종단협 신년법회는 1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서

조계종은 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7일 오전 10시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종정 진제 스님에 대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한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과 중앙종회 의장 항적 스님을 비롯해 전국 교구본사 주지스님과 중앙종회의원 등 100여 스님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또 이기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과 김희옥 동국대 총장 등 불교 각계 대표들과 재가·신도단체 대표 100여 명도 법회에 동참한다.

종정 진제 스님은 신년하례법회에서 불

자들에게 수행정진을 당부하는 신년교시를 내릴 예정이다. 신년하례법회에 이어서는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 법계 품서식이 열린다. 대종사 법계 품서식에서는 원로위원인 세민, 정련, 지성, 대원, 성파, 성우 스님이 대종사 법계를 수여받을 예정이다.

한편,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지승, 조계종 총무원장)는 1월 14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갑오년 신년하례법회를 연다. 이날 신년하례법회에는 조계종,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각 종단 대표들 100여 명이 참석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 최전방 군부대 위문 조계종 총무원장 지승 스님이 구랍 23일 강원도 화천 최전방 철성부대를 방문해 군장병들을 격려했다. 지승 스님은 사단 측에 위문금 1000만원을 전달했으며 3연대 군법당 연승사를 방문해 기도를 올리기도 했다. 또 스님은 철성부대 인성교육 시간에 강사로 나서 자신의 군 복무 경험을 소개하며 “서로 어울리며 배려하는 마음을 배울 수 있었다”며 장병들이 활차 군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종일 기자

# 진각종 새해 예산 164억9천837만원 확정

## 포교비등 대폭 증가...포교활성화 의지 반영

진각종 새해 예산이 164억9천837만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총의회(의장 해명 정사)는 12월 19일 총의회 회의실서 제388회 임시총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열고 2014년도 새해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총리원 140억2천만 원, 교육원 7억5천만 원 등 지난해보다 5억137만 원이 증가한 164억9천837만 원으로 확정 했다.

진각종 새해예산은 총리원의 경우 청소년, 자성동이를 비롯한 유소년과 신행단체 회원 및 일반 교육연수, 교화결집대회 등 포교사업비가 대폭 증액되고, 서원가 창작보급금 등 문화홍보비도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회당문화축제, 종단 8대

절, 기타 행사비 등은 예년수준으로 소폭 감소됐다. 이는 신교도와 산하단체 구성원들의 교육 및 연수를 확대해 조직강화는 물론 포교활성화를 꾀하고자 하는 종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는 중무행정의 실질적 예산편성으로도 분석된다.

교육원의 경우도 이를 반영하듯 수평프로그램과 교화모델개발, 기초학술자료, 소의경전교재, 교법자료전산화, 과제개발워크숍 등을 비롯해 70년사 편찬, 선대 스승사상연구비 등에서 다소 증액됐다.

총의회는 이에 앞서 총인원 지하주차장 신축공사금액과 진각종유치원연합회 구성안을 승인하기로 결의하고 종헌 제

34조와 헌정원법, 심인당법, 종단산하기관관리법, 중유재산관리법, 의전법 등 일부 법률 수정, 보완키 위해 상정된 중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총의회는 또 이사로 선임됨에 따라 공석이 된 덕운 정사 후임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로 명륜심인당 주교 효명 정사와 낙산심인당 주교 증혜 정사를 복수로 추천하는 한편 효심 정사 후임 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이사로 대구교구청장 겸 희락심인당 주교 정효 정사와 포항교구청장 겸 보정심인당 주교 능원 정사를 복수추천 했다.

총의회는 이어 백월정(전 응심심인당 교화) 전수의 선사록 등재를 의결했다. 진각종의 ‘선사록’은 열반한 선대 스승을 담은 것으로 선사록에 등재되면 종단 차원 추모사업이 진행된다. 김주일 기자

## 불교 펌웨어·담합 논란

### ‘다라국문학상’ 수상 철회

불교펌웨어와 역사왜곡, 심사 담합 논란에 싸였던 ‘다라국문학상’ 수상이 철회됐다.

합천군은 구랍 23일 제1회 다라국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된 ‘황강, 다라국의 발원’의 작가 표성중 씨가 최근 스스로 수상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불교나라임을 선포한 신라가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는 기독교 국가인 가야와 종교전쟁을 벌인다는 이야기를 담은 표 씨의 작품은 불교펌웨어는 불교계의 비판과 심사담합 의혹의 지역문민계의 지적을 받았다.

합천군은 자체 감사를 벌여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합천군은 이와 함께 “문학상 선정과 심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절차를 어기거나 편의를 봐준 정황이 있는지 등을 계속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인쇄돼 시중에 배포된 작품은 회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군포지역 6개 직능단체 불자회원 합동 수계

정각사, 구랍 8일 불자 150명 합동 수계법회

군포지역 직장불자회원 150명이 부처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서원했다.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는 12월 8일 군포 정각사 대법당에서 직장불자회 150명을 대상으로 ‘직장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수계를 받은 불자는 정각사가 운영하는 군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및 보호작업장 보현회를 비롯해 군보시립노인요양센터 관음회, 군포 개인택시 법륜회, 군포경찰서 자비회, 군포시청 성불회 회원들이다.

이날 수계식은 정각사 주지 정엄 스님을 수계사로, 총무국장 정대 스님이 인례사로 한글반야심경 봉독, 참회진언, 귀의, 발원, 계침수여 등을 진행했다.

정엄 스님은 “계라는 것은 어렵고 딱딱한 것이 아니다”라며 “계를 받아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해 참 불자가 돼야 한다”고



군포 정각사(주지 정엄)는 구랍 8일 군포 정각사 대법당에서 직장불자회 150을 대상으로 ‘직장 불자 합동 수계법회’를 거행했다.

강조했다. 또 스님은 “거짓말 대신 진실하고 아름다운 말을 하며, 술이나 미약등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 대신 정신을 맑혀 주는 실천 응용하면 된다”며 생활 속에서 계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65세이상 승려 연금 지급 종단 불교 조계종 계율청정종단

### ■ 종 정

**총무원장:** 혜인    **사서실장:** 대산

**총무원**

부원장: 동안, 도불    교육원장: 상산  
 총무부장: 천산    교육부장: 태산  
 재무부장: 해만    교무부장: 해인  
 교무부장: 해인    교육국장: 진산  
 사회부장: 정택    포교원장: 정산  
 문화부장: 지운    포교부장: 법진  
 총무국장: 남산    포교국장: 무량  
                           국제포교원장: 종산청목

**교무국장:** 지성    **감찰원장:** 정오  
 사회국장: 법일    **감찰부장:** 백산지건  
 문화국장: 해인    **감찰1국장:** 법산  
 문화재관리국장: 진각    **감찰2국장:** 수산  
                                   **감찰3국장:** 인산  
                                   **감찰4국장:** 불산

**■ 불교조계종 신문사**

발행인: 혜인    편집인: 문화부장: 태산  
 편집기자: 이기영    문화국장: 용산  
 사회부기자: 이근진,    사회국장: 법산  
                                   유현석

이사: 해원, 정산, 각원, 덕산, 향인, 관불,  
 해인, 지성, 보현, 법신, 도은, 수옥,  
 서호, 성화, 해월, 화광

### ■ 원로 원: 성민, 혜일, 혜정, 일봉, 혜경, 천불, 수원, 혜원

**방장:** 대련, 혜경, 혜정, 일봉

**인산장(경기도무명문화제):** 수원

**■ 지방교구 총무원장**

서울총무원장: 정산    **충북총무원장:** 학산    **전북총무원장:** 법성  
 서울남부총무원장: 보덕    **경남총무원장:** 백산 지건    **제주총무원장:** 정호  
 경기총무원장: 도불    **경남남부총무원장:** 천산    **울산총무원장:** 해공  
 경기서부총무원장: 자명    **경남서부총무원장:** 자명    **일본오사카총무원장:** 인혜  
 경기남부총무원장: 해인    **경남창원총무원장:** 지원    **일본동경총무원장:** 정대  
 인천총무원장: 해원    **경북총무원장:** 덕운    **미국뉴욕총무원장:** 성산  
 강원총무원장: 광덕    **부산총무원장:** 서봉    **중국남경총무원장:** 해산  
 충남총무원장: 해덕    **부산북부총무원장:** 수산    **중국청도총무원장:** 종산청목  
                                   **전남총무원장:** 도명

**■ 총 립**

서울총립 혜인사    **■ 종단사업부**  
 삼화총립 백화사    대표이사: 노사나  
 사단법인 천지무에도협회    불교조계종  
 사단법인 행복한사회    종은상조: 김호철  
 의료법인 효성    H&G: 이영호  
 재단법인 가평그린공원    금용사업본부  
 사회복지법인 정향    **■ 전국신도회**  
 사회복지법인 인주    **충년신도회**

**■ 청년신도회**

회장: 손영진  
 홍보처장: 박영실  
 총무계장: 조일  
 기획실장: 심원일

**■ 중국남경총의약대학**

총장: 오연화    부학장: 정오, 남산  
 한국총장: 손혜인    **중고등학교장:** 손영진  
 학생처장: 손영진    **조교:** 심미, 유위, 손정    **국제부교과과장:** 이안산  
 운영이사: 법정, 해담, 보현, 본각, 수옥, 향인, 수정, 현조, 금산, 지혜,  
 지성, 원산, 해월, 성담, 화광, 진화

총무원: 서울 강남구 신사동 511-5 우135-887    총무원장실 (02)511-1080    인터넷주소: 불교조계종.kr(www.shbuddhism.or.kr)

총무국 (02)511-2026-7 / 팩스 (02)511-2028    불교조계종신문 (02)3445-7375-6    불교조계종신문: www.jogaejong.or.kr

종단사업부: (02)549-1918    일간동국신문사: (02)511-1080    불교조계종학림: www.njutcm.co.kr

남경총의약대학: www.njutcm.co.kr    E-mail 주소: samhwade@hanmail.net    samhwade@naver.com